

박지원의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에 나타난 이해와 해원(解冤)의 글쓰기

현안옥(전북대)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3. 망자 생(生)의 요처(要處)와 해원(解冤) |
| 2. 단락별 내용 분석과 구조적 치밀성(緻密性) | 4. 나아가며 |

1. 들어가며

박지원(朴趾源, 1737-1805)¹⁾은 조선 후기 문장가로, 그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문 산문 중 ‘비지문(碑誌文)’은 제한된 편폭과 일정한 양식이 갖춰진 갈래로, 문장가의 문학적 역량을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암은 비지문이 사자(死者)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관습적 투식문(套式文)을 쓰는 태도를 회의적으로 평가하였다.²⁾ 그렇기 때문에 연암은 비지문에 망자의 생을 담기

1)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미중(美仲) 또는 중미(仲美), 호는 연암(燕巖) 또는 연상(煙湘)·열상외사(洌上外史). 정조 4년(1780)에 진하사(進賀使) 박명원(朴明源)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유려한 문장과 진보적 사상으로 이름을 떨쳤다. 북학론을 주장하였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을 강조하였다. 문집에 『연암집』이 있다.

위해 고민하였고, 그의 작품은 16~17세기 문인들과 비교해 보아도 몰개성적인 한계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 현재까지 연암의 비지문에 대한 연구는 산문 문체적 특성, 소재 또는 어휘의 활용, 작품의 개작 과정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⁴⁾ 강국주는 박지원 작품 속 죽음을 ‘주제의식 형상화’와 ‘기억의 외화’로 양분하고, 죽음의 사회적 맥락을 고찰하였다. 하지만 모든 문학 작품을 다루었기에 그 분류가 너무 포괄적이며, 비지문의 특성을 분별하지도 않았다.⁵⁾ 정민은 『홍덕보묘지명』의 명(銘)과 『호질』을 연계하여, 연암의 사회 비판의식을 다루었다. 특정 단어를 중심으로 작품 내 영향관계를 주제적 측면에서만 다루었다.⁶⁾ 최근 정순희는 박지원 비지류를 비교 분석하여, 그 구조와 서술적 특성을 찾아 작가의식을 연구하고 있다.⁷⁾

비지문이 개별적 망자(亡者)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창작되었음을 고려하면, 각각의 작품을 구조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독자적(獨自的) 접근이 필요하다. 연암의 개성적 문체가 증명된 소설이나 유명 산문⁸⁾ 외에도 비지

2) 박종재, 『과정록』 권4, 한국한문학회연구(제 7집 부록), 1984, 82쪽 참조. “古人所爲貌圓方寫貌長短寫者, 馬傳韓碑所以可讀, 卽今人不知此義, 但取累累, 滿紙陳談死句” 박지원은 도식화된 비지문 기술에 ‘貌圓方寫, 貌長短寫’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물 형상에서 ‘神情’과 ‘典型’이 표현되어야 개별성이 있는 글이며, 이러한 태도가 결여된 글은 ‘陳談死句’라 평가했다.

3) 황의열, 『朴燕巖의 碑誌類文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의이론 산문』, 보고사, 2007, 500쪽 참조. 안득용,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비지문(碑誌文)의 전범(典範)과 서술 양상에 대한 고찰』, 『韓國漢文學研究』 39집, 2007, 255쪽 참조.

4) 현재 박지원의 비지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동환의 『朴燕巖의 洪德保墓誌銘에 대하여』, 『이조후기 한문학의 재조명』, 창작과 비평사, 1983, 장원철의 『燕巖의 碑傳文字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研究』 제13집, 1990, 김철조의 『燕巖 朴趾源의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연구 -개작 과정과 글쓰기 방식을 중심으로』, 『漢文學報』 제22집, 2010 등이 있다.

5) 강국주, 『燕巖文學과 ‘죽음’의 형상화 방식』, 서울대학교 석사, 2003. 이 논문에서 ‘박수수 묘지명’은 ‘졸(拙)’의 주제의식 형상화로 다루었으며, 유교적 질서를 실천하는 지식인으로 분류하였다.

6) 정민, 『홍덕보묘지명의 명사고』, 『동방한문학』 21, 2001. 정민, 『고전문장론과 연암 박지원』, 태학사, 2010, 169~180쪽 참조. 반합(飯舍)과 영맥유(詠麥儒)를 중심으로 작품간 의미맥락을 찾았으며, 당대 현실 비판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7) 정순희, 『박지원의 비지류 산문에 나타난 ‘孝’의 형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학』 90집, 2014. 『박지원 <삼종행수록대부금성위겸오위도총부도총판증시흥희공묘지명>의 구조와 서술전략 - 정조 <금성위박명원신도비명병서>와의 비교를 통해』, 『어문연구학회』, 2015.

8) 박지원의 대표적 산문인 『열녀함양박씨전』의 경우 개별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이 최근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철조, 『연암의 <烈女咸陽朴氏傳>再考 - 새로운 자료 소개를 겸하여』, 『大東漢文學』 24집,

문 개별 작품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절실하다.

고전산문에서 비지류의 형식적 한계가 뚜렷한 것을 감안할 때, 연암의 비지문 연구는 그의 문학적 특성을 가장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접근 방식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암의 ‘비지문(碑誌文)’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망자의 생애를 기술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미시적 관점’으로 고찰하려 한다. 이에 본고는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을 연구 대상으로⁹⁾ 설정하고, 연구의 본격적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¹⁰⁾ 이를 위해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을 의미 맥락으로 세분화 하고, 그 단락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내재적 관점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구조적 치밀성(緻密性)’ 과 연암이 ‘망자의 생(生)을 통찰하는 요처(要處)’를 찾고자 한다.

2. 단락별 내용 분석과 구조적 치밀성(緻密性)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은 박수수(朴綏壽, 1744-1772)¹¹⁾의 묘명(墓

2006, 강명관 『〈열녀함양박씨전〉 재론』, 『동양한문학연구』 32집, 2011, 이월영 『〈열녀함양박씨전〉 연구(研究) -문학적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집, 2012, 박수밀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의 구조와 글쓰기 방식』, 『韓國漢文學研究』 53집, 2014 등이 있다.

- 9) 『연암집(燕巖集)』에는 총 15편의 비지문(碑誌文)이 수록되어 있다. 그 작품으로는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 ‘伯姊贈貞夫人朴氏墓誌銘’, ‘伯嫂恭人李氏墓誌銘’, ‘洪德保墓誌銘’, ‘癡庵崔翁墓碣銘’, ‘李處士墓碣銘’, ‘贈司憲府持平芮君墓碣銘’, ‘參奉王君墓碣銘’, ‘嘉義大夫行三道統制使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都摠管, 諡忠烈李公神道碑銘 并序’, ‘再從叔父禮曹參判贈領議政公墓碣銘’, ‘三從兄綏祿大夫錦城尉兼五衛都摠府都摠管贈諡忠僖公墓誌銘’, ‘孝子贈司憲府持平尹君墓碣銘’, ‘梁護軍墓碣銘’, ‘醉默窩金君墓碣銘’, ‘雲峯縣監崔君墓碣銘’이 있다. 이 글은 연암 비지문의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이며, 향후 범주를 확장해 갈 예정이다. 그리고 ‘연상각선본’ 『연암집』 권2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 10) 현재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전체 비지류 연구에서 윤세형(『박지원 산문의 연구 : 비지문(碑誌文)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3)과 황의열(『朴燕巖의 碑誌類文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의이론 산문』, 보고사, 2007)이 부분적으로 다룬바 있다. ‘졸박’한 가풍 소개를 자조(自嘲)적인 사건 설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성품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태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은 한 작품의 내밀한 영향 관계를 중심에 두지 않고, 작가의 전반적 성향을 바탕에 둔 해석이라는 한계가 있다.
- 11) 망자의 이름 ‘綏壽’를 연구자에 따라 ‘박수수’ 또는 ‘박유수’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도 두 이름을 섞어 사용하고 있으며, 황의열의 『朴燕巖의 碑誌類文에 대하여』,

銘)이다. 망자의 부친은 박상덕(朴相德, 1724~1779)이며,¹²⁾ 박명원(朴明源, 1725~1790)¹³⁾의 만형 박흥원(朴興源, 1708~1736)의 아들이다. 박상덕의 청렴한 인사(人事)에 대해서는 「族兄都尉公周甲壽序」¹⁴⁾에도 언급된 바 있다. 망자(亡者)는 연암보다 7살 아래인 족손(族孫)으로, 항렬상 손자뻘이었지만 실제로는 동년배였다.

일반적으로 비지문은 ‘묘주(墓主)의 성명과 세계, 생물연대와 장지(葬地), 처자손록, 관력(官歷), 성품, 찬명 동기, 명(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을 의미 단락에 따라 정리하면, 전체적인 구성이 다음과 같다.

- ① 가계1(장지)-② 찬술동기1-③ 가계2-④ 생애1-⑤ 찬술동기2-⑥ 생물연대와 관력 및 처자록-⑦ 생애2-⑧ 명

먼저 작품을 의미 단락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泰東古典研究 7집, 1991, 99쪽)에서는 박유수라 기록하고 있다. ‘綴’가 ‘편안할 수, 기장식 유, 드리울 타’로 쓰이나 뒤에 ‘壽’가 따르는 것으로 보아 ‘편안할 수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망자의 이름을 ‘박수수’로 통칭하여 사용하였다.

12) 뒤에 朴宗德으로 개명함. 자 여수(汝壽), 시호 효헌(孝憲), 초명 상덕(相德). 본관은 반남(潘南). 아버지는 진사 흥원(興源), 할아버지는 도승지 사정(師正). 1746년(영조22) 별시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 정언(正言)을 거쳐 전후 18년간 이조판서로 이름을 떨쳤으나, 74년 관직이 삭탈되었다. 이후 76년(정조 즉위)에 다시 기용되어 공조판서에 오르고, 이듬해 대사헌으로 수어사(守禦使)를 겸임하였다. 그러나 권신(權臣) 홍국영의 권세를 눈치챌다가 파직되었다.

13) 연암의 삼종형. 자는 회보(晦甫), 호는 만보정(晩葆亭). 할아버지는 참봉 필하(弼夏)이고, 아버지는 예조참판 사정(師正). 14세에 영조의 셋째 딸인 화평옹주(和平翁主)와 결혼하여 금성위(錦城尉)에 봉해졌고 1766년, 1780년, 1784년 세 차례나 사은사(謝恩使)로 중국을 다녀왔다.

14) 『연암집 제1권, 연상각선본』, 「族兄都尉公周甲壽序」의 본문 중 ‘지원(趾源)은 사대부들이 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일찍이 들은 바 있다. (중략) “이거야 무엇이 족히 어질다 하겠는가. 공의 조카(박상덕)가 판서로서 10여 년 동안이나 번갈아 이조와 병조의 우두머리로 있었으며 공은 한 번도 사사로운 일로 청탁한 일이 없었으며, 집안이 엄숙하기가 조정과 같으니 판서 역시도 공의 뜻을 공경히 받들어 몸가짐이 담박하고 겸약하여 끝내 세상에 비난받는 일이 없었소. 이는 실로 공의 가법이 엄하였기 때문이오.” (趾源竊嘗聽士大夫之談公者曰(중략). 是何足賢哉. 公之從子判書迭長兩銜十餘年. 公一不以私事相干. 家庭之內. 肅若朝廷. 判書亦能敬承公志. 恬約自持. 終身無訛謔於世者. 寔公家法之嚴也.)’ 부분에서도 박상덕과 박지원, 박명원의 관계와 반남 박씨의 가풍을 재확인할 수 있다.

① 원임(原任) 이조 판서 박공 상덕(朴公相德)이 맏아들 급제군(及第君) 수수(綏壽)의 상(喪)을 당했다. 경(經)에 맏아들을 위해 삼 년의 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니¹⁵⁾, 대개 그의 조부인 예조 참관 증(贈) 영의정 부군(府君) 휘(諱) 아무와, 선친 진사(進士) 증 이조 판서 부군 휘 아무를 계승하여 따로 종(宗)이 되었기 때문이다.¹⁶⁾ 장차 모년 모월 모일에 파주(坡州) 광현(筐峴) 모 좌향(坐向)의 별에 장사할 예정이다.¹⁷⁾

①은 글의 첫 번째 단락으로 ‘망자(亡子)의 가계와 장지(葬地)’를 소개하고 있다. 단순히 객관적 사실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망자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핵심 정보가 담겨 있다. 그것은 바로, ‘長子’라는 신분이다. 박상덕이 ‘계승하여 따로 종(宗)이 되었기 때문이다(繼爲別宗)’는 표현은 양자가 되어 후손을 이었다는 뜻이다. ‘繼’는 ‘대를 잇다(繼代)’는 의미이고, ‘별개의 종(宗)이 되었다’는 것은 ‘소종(小宗)’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예기》¹⁸⁾에 따르면 ‘宗’은 ‘별자(別子)’의 적통을 계승한 것으로, 아버지를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렇기에 선조를 계승하여 별도로 종(宗)을 이루었다는 것은 박상덕의 적장자인 박수수도 ‘소종의 종주(宗主)’ 즉, 종손(宗孫)이었다는 부연 설명이다. 가족들이 종손에게 걸었을 기대감과 그가 적장자로서 느꼈을 막중한 책임감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태생적 책임감’은 망자의 인생 행보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5) 『예기』 대전(大傳) 『의례(儀禮)』 상복(喪服)에 “父爲長子”고 하였다. 적장자(嫡長子)는 장차 대종(大宗)이나 소종(小宗)의 종주(宗主)가 되기 때문이다. “庶子不得爲長子三年 不繼祖也”는 “서자(庶子)는 맏아들을 위해 3년의 복을 입을 수 없으니 그 맏아들은 선조를 계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16) 별종(別宗)은 본종(本宗) 이외에 별도로 세운 종(宗)으로, 소종(小宗)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고래의 종법제도(宗法制度)에 의하면 무릇 고조(高祖)가 같은 형제들이 하나의 소종이 되며, 제 5대가 되어 고조가 같지 않게 되면 별개의 소종(小宗)으로 나뉘게 된다.

17) 『연암집』 제2권 연상각선본(煙湘閣選本)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原任吏曹判書朴公相德。喪其長子及第君綏壽。經爲長子三年。蓋繼其大考禮曹參判贈領議政府君諱某。考進士贈吏曹判書府君諱某。爲別宗也。將以某年月日。葬于坡州筐峴某坐之原。

18) 『예기』, 『대전(大傳)』 “別子爲祖 繼別爲宗 繼嗣者爲小宗” 즉, “별자가 조(祖)가 되고 별자의 적통을 계승한 이는 종(宗)이 되고 아버지를 계승한 자는 소종(小宗)이 된다.” 하였는데, 이는 별자는 적통(嫡統)을 잇지 않지만 별자에게도 후손은 있으니, 그 후손이 별자를 높여 조(祖)로 삼을 경우, 그 별자를 계승한 적장(嫡長)은 대종(大宗)이 되고, 별자를 계승한 적장 이외의 아들은 소종이 된다.

② 공(박상덕)은 지원(趾源)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다.

“내 아이가 일찍이 숙부님의 글을 몹시 좋아했으니, 숙부님이 지은 묘지명을 얻음으로써 죽은 자를 불후(不朽)하게 하고, 그뿐 아니라 산 자도 가끔 읽어 보고 그의 용모와 목소리를 상상함으로써 무궁한 그리움을 매워 볼까 합니다.”

지원은 공에게,

“에에, 알겠습니다.”

하고 답하였다.¹⁹⁾

망자에 대해 객관적 정보만 전달하던 ①과 달리 ②의 ‘찬술동기’는 인물들의 감정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묘주(墓主)의 아버지인 청자(請者)와 작자(作者)인 연암의 대화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당시 대화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아울러 찬술자는 망자의 아버지인 박상덕을 ‘공’으로, 망자인 아들은 ‘군’으로 칭함으로써, 관계를 정리하여 지칭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연암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부여한 것으로, 망자와 청자 그리고 작가의 관계망이 정리된 것이다.

먼저 아들의 묘지명을 청하는 아버지의 절절한 감정이 ‘執手’와 ‘泣’이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나 있다. 연암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애통함이 절로 묻어난다. 그 청탁 내용을 보면, 망자의 불후를 기원함과 동시에 산 자의 그리움을 매우려는 처절함이 엿보인다. 이 글은 망자의 행적을 기록하는 공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망자의 혈육을 위로하는 사적인 차원의 목적도 크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찬술자가 망자의 생애와 그 애환을 담아, 요절한 자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야 하는 내밀(內密)한 목적이 가시화 되어있다.

두 번째로 망자와 작자(作者)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다. 망자가 평소 ‘숙부의 글을 몹시 좋아했다(嘗愛吾叔文)’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글(文)’은 기존의 사서오경(四書五經)같은 고전(古典)이 아니다. 바로 ‘연암의 글’이다. 연암이 조선 후기 문단(文壇)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 ‘文’은 단순한 문체 수준을 넘어서는 지향성(志向性)을 담은 것이다. ‘글을 좋아한다는

19) 박지원 앞의 글 : 公執趾源手。泣曰。以吾兒之嘗愛吾叔文也。不特得其銘以不朽死者。庶幾生者。時閱而得其容聲。以塞其無窮之思也。趾源復于公曰。唯唯。

것'은 단순한 독서취향이 아닌 '생의 태도'를 상징한다. 따라서 '연암의 글을 매우 좋아 했다'는 표현은 망자와 작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관계였다 는 의미이다. 즉, 정신적 교감이 이루어진 관계이다.

'唯唯'는 '빠르게 대답하는 말'²⁰⁾로, 상대방의 청에 공손히 응하면서 흔쾌하게 수락하는 답변이다. 이는 친족관계라서 피동적으로 수락한 것이 아닌, 연암의 자의적인 결정이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 ② 단락은 '친솔동기' 뿐 아니라 연암이 망자를 아끼는 마음과 망자가 연암을 사모했던 영향관계도 기술하고 있다.

③ 박씨(朴氏)는 여덟 망족(望族 명망 높은 씨족)이 있는데²¹⁾ 그중에 반남(潘南)을 본관으로 한 박씨가 일족도 많고 크게 출세하였다. 다만 그 천성의 졸박(拙朴)함을 성자(姓字)와 함께 얻어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모범이 다른 씨족과는 크게 달랐다. 모두들 안에서는 부형을 스승으로 섬기고, 밖에서는 결코 허황되게 남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명론(名論)은 집 밖을 벗어나지 않고 발걸음이 뒷골목에 미치는 일이 드물었다.

그중에 끈궁한 자는 춥고 배고픈 데에 이골이 나서 삼가 자신의 분수에 충실할 뿐이며, 현달한 자는 겸양과 염치를 길러 후시라도 선비의 본색을 벗어날까 두려워했고, 어진 이는 스스로 터득하기에 있는 힘을 다하고 선(善)을 보면 단단히 지키며²²⁾, 어리석은 자는 차라리 고루하고 견문이 적은 탓으로 떨쳐 일어나지 못할망정 세상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순박하고 촌스럽고 비타협적이고 어눌함으로써 확연히 남다른 하나의 가풍을 이루었으며, 이른바 세태와 시속(時俗)이란 것은 배우고 싶어도 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 기울이고 눈길 돌릴 줄도 모르니 물들려야 물들 수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속에 부끄러움으로 그 낮빛을 붉힌 채 마치 농사꾼이 변화가를 건드리는 자²³⁾는 물을 것 없이 우리 박씨였다.

그러므로 ㉠비록 공(박상덕)이 일찌감치 귀한 신분이 되었으나 홀(笏)을 쥐고

20) 『소학』의 「立教第一」에서 “子能食食(音似) 教以右手 能言 男唯女俞 男鞶革 女鞶絲”의 주로 “食 飯也 右手 取其便 男女 同也 唯 應之速 俞 應之緩 (중략)”라 하였다. 여기에서 '唯'는 빠르게 대답하는 응답이며, '俞'는 느리게 대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1) 박씨 중 밀양(密陽) · 반남 · 고령(高靈) · 함양(咸陽) · 죽산(竹山) · 순천(順天) · 무안(務安) · 충주(忠州)를 본관으로 하는 이른바 '팔박(八朴)을 가리킨다.

22) 『중용장구』 제20장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23) 『맹자』, 「滕문공 하(滕文公下)」 “其色赳赳然若夏畦之行于莊嶽者”

허리띠를 드러운 채 조정에서 행동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의 가풍을 스스로 증현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간혹 우리 집안사람들의 성품이 이러한 줄은 모르고, 남과 친히 할 때 조금 곱살긋지 못하면 오만한 게 아닌가 자못 의심하며, 응대하는 일에 왕왕 소홀하다 보면 도리어 뻗뻗한 탓으로 돌리어, 모두 이르기를 ‘반남 박씨란 거들먹거릴 것도 없으면서 제멋대로 교만하다.’ 하였다. 그러므로 자제 중에 총명하고 재주 있어 조금이라도 그런 티를 드러내는 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집안끼리 모여서 두려워하며 ‘이놈은 어찌서 우리 집안의 상규(常規)와 다른가’라고 하였다.²⁴⁾

세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 흐름은 ‘가계 특성’ 소개로 전환된다. ‘반남 박(朴)씨는 성씨에서 줄박함을 얻어 천성이 되었다’는 것은 언어유희다. ‘朴’을 성씨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단어의 다른 의미인 ‘순박하다, 꾸밈이 없다’를 생각하면, ‘줄박함’이 성씨(姓氏)와 함께 하늘이 준 품성이라는 표현에 공감할 수 있다. ‘줄박(拙朴)하다’는 것은 꾸미지 않아 순수하며 질박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유자(儒者)들이 지향하는 미덕이다.²⁵⁾ 사실 반남 박씨는 크게 현달하고서도 줄박한 품성을 유지하였기에, 그들의 천품(天稟)이라 할 수도 있다. ‘순박하고 촌스럽다’는 것은 투박하고 본성을 숨기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바탕(質)’이다. 그리고 ‘비타협적이고 어눌하다’는 것은 원칙과 법식에 준하여 ‘쉽게 변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자세(眞)’이다.

하지만 세인들은 반남 박씨를 ‘가진 것도 없이 제멋대로 교만하다(無挾自驕)’라 평가하였고, 이런 구설(口舌)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구구절절 해명하지

24) 박지원 앞의 글 : 朴維八望氏于潘南者。族鉅而顯。獨其天賦之拙。與姓俱得傳世。楷範迥異他族。皆內師父兄。外絕浮慕。名論不出戶庭。步履罕及閭閻。其窮者篤饑工寒。恭惟素分。其達者牧謙養耻。疾或離土。賢者困於自得。而見善則固執之。愚者寧坐謏寡不振。而亦不肯與世推移。樸野隘訥。畫成一家之風。所謂世態時規。不惟欲學而不能。亦其耳目未暨。無緣薰襲。稠人廣衆。其色赳赳然若夏畦之行于莊嶽者。必我朴也。故雖以公之早貴。視其擁笏垂紳。周旋乎廊廟之間。有足自驗其家風也。然而世或不識我家品性之如此。而與人少款曲。則頗疑其簡傲。酬事多踈略。則反歸之矯亢。舉謂潘南之朴無挾而自驕也。一有子弟之聰明才俊稍露風調者。則聚族而憚之曰。是以異於吾家之雅規也。

25) 신두환, 『조선 사람의 시기에 나타난 ‘줄박’의 문예미학』(한국한문학회연구 제38집, 2006, 275쪽) 참조. ‘拙’은 고려말 문인 최해(호가 ‘拙翁’)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널리 사용된 관념이다. 권근은 ‘拙’에 대한 정의를 ‘巧’의 반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입기용변을 교묘하게 하는 자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사람의 큰 병통이다. (중략) 부끄러운 것을 알아서 의리를 지키는拙 함을 통해, 참된 것을 지키려 한다.”고 기록하였다. 즉, ‘拙’은 부끄러움을 통해 浩然을 기를 수 있는 자세이며, 이를 통해 德性을 키우는 근간이었다.

않았다. 다만 그럴수록 행실을 안으로, 안으로 더 조심할 따름이었다. 결국 세 인에게는 오해가 쌓여 만남 박씨에 대한 편견을 낳았으며, ‘뻗뻗하고 오만한 족속’이라는 평판이 만들어졌다. 그렇기에 그들이 더욱 ‘졸박’해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천성이 졸박한 그들에게 엄닉(掩匿)한 삶은 불가항력이었고, 결국 세상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더욱 ‘拙’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③-⑦에서 드러난 박상덕(朴相德)의 행실이다. 수수의 부친인 상덕은 24살에 급제하였고, 후에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욱 겸손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금까지 설명한 ‘효우공검(孝友恭儉)’한 성향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었다. 특히, 상덕의 ‘拙’은 관리로서 담박(淡泊)하고 청렴(淸廉)한 규범적(規範的)인 품행의 근본이었다. 진정으로 씨족의 천품을 증험한 자였다.

④ 내가 일찍이 보니 망자(박수수)는 재주가 그렇게 아름다운데도 오히려 집안에서라도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스스로 두텁게 가리고 숨기느라 겨를이 없었는데, 하물며 먼 사람에게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비록 과거에 우연찮게 급제하기는 했지만 담박하여 흥미 없어 했으며, 수시로 먼 데를 바라보며 사모하기를 마치 학이 새장 안에 있는 것같이 하였다. 그러나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할 상대가 없으니 홀로 술로써 속을 풀었다. 거처하는 방에는 먼지가 뽀얗고 책상에는 초라한 두어 질의 책뿐으로, 항상 하루 목고 가는 주막집과 같았다. 감사로 나가는 아버지를 여러 번 따라다녔으나 상자 속에는 먹 한 자루도 저장하지 않았으며, 일찍이 벼룩집을 만들고 싶었으나 그 품삯을 걱정하여 그만두었으니 그 졸박함이 이와 같았다.

평양은 도움이 화려하고 돈이 물 흐르듯 하며, 높고 큰 누대들이 많아서 사방에서 유람객들이 몰려들어 오고 맑은 노래와 절묘한 춤이 노상 좌우에 있었지만, 군(君)은 바야흐로 고개를 공손히 숙이고 날마다 정문(程文)을 공부하였다. 문밖에는 신 두 켤레밖에 없었으니,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동접(同接)의 선비였다. ㉡때로는 스스로 아이중에게 술 한 병을 들려 따르게 하고서, 훌쩍 홀로 걸어 나가 먼 곳을 내려다보며 시를 읊조리곤 하였다.

홀홀하기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았으니, 전 감영의 군교(軍校)와 이졸(吏卒) 들도 군이 관아에 있는 줄을 아는 자가 없었다. 그런 군을 누가 조롱하였더니,

군은 말하기를 “집에 있으면 감독(監督)이요, 관아에 있으면 나그네이지요.”²⁶⁾라 하였다.²⁷⁾

이 단락은 ‘망자의 생애’를 직접 다룬 부분으로 반남 박씨 가문의 ‘졸박’한 품성을 다룬 ③ 단락과 중요한 연결 지점이다. 망자의 일상생활은 소박하고 수수함 그 자체였다. 먼저 가득한 방에 서책 몇 권으로 소일을 삼았으며 사적인 일에 과욕함도 없었다. 심지어 벼룻집을 만드는 품삯이 아까워 그만둘 만큼 욕심이 없었으니, 지극히 ‘졸박’한 사람이었다. 이토록 근검한 모습은 ‘반남 박씨’의 천품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그의 부친인 상덕의 ‘拙’과도 같다. 그러나 숨겨진 망자의 남다른 면이 있다. 바로 ‘여객(旅客)’으로 비유될 정도로 얽매인 것 없는 자유로움, 그것이였다.

특히 ‘내가 일찍이 보니 망자의 재주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吾嘗見長逝者之才美)’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암이 일찍부터 수수(망자)를 보았다는 것은, 그의 남다른 존재감을 누구 보다 먼저 인지했다는 뜻이며, 망자의 재주가 낭중지추(囊中之錐)였음을 의미한다. 연암은 남다른 재능이 있던 수수의 본질을 이해하였고, 그가 그러한 재능을 스스로 감추려 했음(自厚掩匿)조차도 알고 있었다. 이는 ② 단락에서 유추했던 연암과 망자의 지우(知友)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망자는 왜 뛰어난 재능을 감추려 전전공공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망자의 행적에서 찾을 수 있다.

④-①의 일화에서 수수는 평소 담박한 본성 때문에 과거 시험에 흥미가 없었고, 마치 ‘새장 속의 학’ 같이 지냈다. 과거에 급제한 사실은 포(褒)의 대상이나, ‘비록(雖)’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과제(科第)한 사실을 ‘해후(邂逅)’라고 서술하였다. 정문(程文)²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났다는

26) 『사기』권41 월왕구천세가(越王句踐世家) “家有長子曰家督”.

27) 박지원 앞의 글 : 吾嘗見長逝者之如彼其才美也。而猶恐或露於家庭。厚自掩匿之不暇。而況於他人乎。雖邂逅科第。泊然寡味。時時望遠。而思如鶴在樊。顧鬱鬱無誰語。則獨自嚮以酒。塵垢滿室。兀上草數帙書。恒若旅舍一宿。屢隨父大藩。而篋中無一墨之貯。嘗欲造硯室。難於工值。而已之其拙如此。平壤都邑富麗。泉貨如流。其名樓高臺。四方遊客輻湊。清歌妙舞。動在左右。而君方俛首課程文。戶外二履。乃其同硯士也。時或自命小僮。携一壺。飄然獨步出。憑眺咏歌。忽忽如過客。一營軍吏。莫有知君在衙。有嘲君者。君謝曰。在家則督。在衙則客。

기술은 적절하지 않기에, 이 문맥에서는 ‘급제를 뜻하지 않게(원하지 않게) 만나다’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 수수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지향을 엿볼 수 있는 단서는 ‘거처하는 방에는 먼지가 쌓이고 책상에는 초라한 두어 질의 책뿐이었다(塵垢滿室 草草數帙書)’는 구절이다. ‘느슨하고 게으른 일상’은 성리학적 수기치인(修己治人)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굳이 망자의 생애를 회고하는 글에 이런 모습을 기록한 것은, 망자가 감추고자 했던 ‘문사(文士)적 기질’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②단락에서 ‘연암의 글을 사모함’으로 이미 앞에서 표현되었다. 연암이 수수의 ‘문사적 기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그러나 수수가 적장자인 상황을 생각하면, 이러한 기질은 현실적 여건과 생득적 성향이 충돌하는 지점이다.³⁰⁾ 엇매이지 않고 자유로우

28) 과거(科擧)의 고시장에서 쓰이는 일정(一定)한 법식(法式)이 있는 글로,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도록 과문의 주종은 시·부·표(表)·책(策)·의(疑)·의(義)로서 흔히 ‘과문육체(科文六體)’라 부른다. 이 가운데 의(疑)·의(義)는 경서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정식(程式)이 요구되지 않는 고문체이다. 그러나 표·책 등은 주로 내용이 관각(館閣)에서 사용하는 시무(時務)에서 관련된 것이다. 일정한 정식이 요구되는 사륙변려문(四六駢儷文：半韻文)이었다. 시·부도 정통한문학과도 다르다.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형태와 체제를 지녔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업(科擧業)에 종사하려는 유생들은 과문법을 익히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수종의 과문초(科文抄)나 규식(規式)을 적은 필사본이 유행하였다.

29) 연암의 ‘문사적 기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많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다. 먼저 ‘자발적 게으름에 대한 만족감’은 『연암집』 권3 「수소완정하야방우기(酬素玩亭夏夜訪友記)」에서 드러나 있다. 게으름에 대한 주변 사람의 문책에 ‘그럴수록 더욱 느긋해하며, 바야흐로 한 가지도 할 일이 없는 것을 스스로 만족스러워하였다.(益晏然。方以無一事爲自得)’는 표현으로 기술하였다. 이 외에도 「주영염수재기(晝永簾垂齋記)」에서는 양인수의 자발적 게으름과 예술적 완성감을 객관적 시선에서 덤덤하게 묘사하여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외에도 「죽오기(竹塢記)」에서는 양호맹의 ‘竹’에 대한 맹목적인 탐닉을 회화화하는 방식으로 ‘문사적 기질’을 ‘癖’으로 풍자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발적 게으름’에 대한 연구는 정순희 「박지원 산문의 문체적 특성 일고-어휘와 주제의 관련 양상을 통해-」(한국한문학연구, 2008, 323쪽)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다. 정순희는 「주영염수재기(晝永簾垂齋記)」의 양인수가 보이는 느슨한 일상과 연암이 「수소완정하야방우기(酬素玩亭夏夜訪友記)」에서 보여주는 게으름을 동일하게 보았다. 이러한 행동은 의도적이며 자발적인 방식으로 ‘나를 지키는 행위로 해석하였으며, ‘晝永簾垂’는 ‘고요하고 평정한 유학자의 기상’이 아닌 ‘한 개인 일상의 자유로움’으로 의미를 전환하였다고 정의하였다.

30) 연암은 1771년(영조 47) 과거를 포기한 뒤, 백동수(白東修)와 함께 황해도 금천의 연암협(燕巖峽)을 다녀왔다. 그 후 은둔할 뜻을 굳히고, 자신의 호를 연암이라 지었다. 「소단적치인(騷壇赤幟引)」 중 “세상의 이른바 ‘급제를 고려하여 거기에 꼭 들어맞게 지은 글’이란 것으로 과거(科擧)를 위한 글을 짓게 되면, 동전을 주조하는 데 납이 섞이고 철이 섞여서 겉으로는 마치 정련(精鍊)된 것 같지만, 속을 보면 실은 경박하고 부실한 것과 같다”(世謂文之照題緊緻者。爲科擧之文。則設鉛雜鐵。外若精鍊。而內實有參差處)함을 통해, 당시 문장가로서 정

며 분방한 성정이기에, 뿌리 없는 나그네처럼 홀홀(忽忽)한 삶의 태도를 지녔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연암이 한눈에 간파한 박수수의 본연적 품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㉑에서 망자는 과거를 함께 공부하던 동접(同接)과 단 둘이 있었을 때도, 표연히 홀로 나와 술병을 기울일 만큼 고적(孤寂)한 사람이었다.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자주 응시’ 했다는 것은, 그의 단적인 외로움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런 자발적이며 본연적인 ‘외로움’은 수수의 또 다른 ‘拙’인 것이다. ‘누구와도 더불어 이야기 할 수 없는(無誰語)’ 상황에서 그에게 친구가 되어 준 것은 바로 ‘술’이었다.

③에서 부친의 ‘拙’이 ‘효우공검’을 기본으로 한 관원으로서의 품성이라면, ④에서 수수의 ‘拙’은 가문의 특성인 검소한 성향과 문필가로서의 자유분방함이 동시에 담겨 있다. 이야기는 다시 ⑤ 단락의 ‘찬술동기’로 이어진다.

⑤ 아! 공(박상덕)은 아버가 된 29년에 그 아들에 대해 안 것이라곤 오직 효도하고 우애하고 공손하고 검박하여 가풍을 잃지 아니하고, 자신의 곤궁함과 현달함, 어짊과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그의 맑고 트인 흉금이라든가 빛나고 화려한 문장 같은 것은 역시 어느 것도 알 수가 없었으니, 군(박수수)의 어짊이 남보다 크게 나은 점이 있었지만 지금 그를 대신해서 그의 평생을 자상히 말하여 공(박상덕)의 마음을 거둬 아파게 하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다.

공(박상덕)은 듣고서 너무도 애통하여,

“과연 그랬군요³¹⁾ 과연 그랬다면 산 자의 원통함이 죽은 자보다 더욱 심하니, 이로써 묘지(墓誌)를 지어 주기 바랍니다.”

하므로, 드디어 그 말을 적고 나서 다음과 같이 서문을 붙인다.³²⁾

문(程文)에 힘쓰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31) 『논어』, 『자로(子路)』 제3장에 “有是哉”가 나오는데, 다산(茶山)은 『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에서 “예전부터 의심하던 것이 이제 증명되었다는 말”로 해석함.

32) 박지원 앞의 글: 嗟乎。公之爲父二十九年。所知於其子者。惟其孝友恭儉。不失家風。而忘憂於窮達。賢愚之間。若其思致之清曠。文詞之瑰麗。亦莫得以知焉。則君之賢有大過於人。而今不忍爲之詳。其平生以重憾公心也。公大慟曰。有是哉。有是哉則乃生者之冤酷於死者。願以此誌其墓。遂書而序之曰。

이 단락은 ②의 연장선 위에 있다. ②가 연암이 묘지문 청탁을 흔쾌히 수락하는 장면이라면, ⑤는 연암이 부친에게 망자를 설명하는 단락이다. ‘찬술동기’ 사이에 짐짓 무관한 듯 끼어있던 ③과 ④ 단락이 망자의 생애를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배열된 요처(要處)인 것이다.

연암은 공이 아버지가 된 29년 동안 자식에 대해 안 것은 ‘효우공검(孝友恭儉)을 실천하고, 궁달현우(窮達賢愚)를 뛰어넘은 것’이라 말한다. 이 문장에서 ‘惟’는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반남 박씨의 졸박한 천품(天稟)’(③단락)뿐이었다 말한다. 이는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자식의 ‘겉만 알고 속은 몰랐다’는 질책이기도 했다. 망자의 ‘속’인 ‘맑고 확 트인 흥금과 빛나고 화려한 문장(思致清曠, 文詞瑰麗)’은 어느 것도 알지 못했음을 통해 부자간의 간극(間隙)을 언급한 것이다. 그렇기에 박상덕도 뒤늦게, “과연 그랬군요(有是哉)”라며 안타까워했던 것이다. ‘有是哉’는 ‘예전부터 의심했던 것이 비로소 이해되었다’는 의미를 담은 말로, 그제야 아들의 오롯한 생을 제대로 다 이해하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⑥ 군(박수수)의 자(字)는 공리(公履)요, 모친은 정부인(貞夫人) 평산 신씨(平山申氏)로, 첨정(僉正 중 4 품 벼슬) 흠(愼)의 따님이다. 군은 지금 임금 갑자년(1744, 영조 20)에 태어나서 임진년(1772, 영조 48) 모월 모일에 죽었다. 23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8세에 문과(文科)에 합격하였다. 그 이듬해에 죽었으므로 미처 분관(分館)³³⁾을 못한 까닭에 관례에 따라 홍문관 정자를 증직(贈職)하였다. 현감(縣監) 한산(韓山) 이응중(李應重)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딸 하나를 두었는데 현재 다섯 살이다.³⁴⁾

⑥ 단락에서는 ‘망자의 생몰과 관력, 그리고 처자록’을 짧게 기록하였다. 망자의 자는 ‘공리(公履)’이다. 이는 관원으로서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기준점이었을 것이며, 집안의 기대와 사회적 자아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 집안의 기

33)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의 세 관청에 나누어 배치하여 일종의 임시적인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를 익히게 하는 일을 이른다.

34) 박지원 앞의 글: 君字公履。母貞夫人平山申氏。僉正愼之女。君生於上之甲子。歿於壬辰某月日。二十三。中進士。二十八。中文科。其翌年歿。而未及分館。故例贈弘文館正字。娶縣監韓山李應重女。有一女方五歲。君方新進。

대주이던 장자가 문과 급제 후 이듬해에 돌연 요절하고는 5살 된 딸 하나만 남겨두었다. 대를 잇기 위해 박상덕을 양자로 들였으나, 한 세대만에 적장손의 요절로 대가 끊겼음을 의미한다.³⁵⁾ ‘계통을 이어갈 대가 끊어(無後)’ 짐을 가장 큰 불효로 여기던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 이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 이상의 죄였다. 특히 급제 후 이듬해에 분관도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이, 집안 사람들에게는 더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줬을 것이다.

⑦ 군(박수수)이 바야흐로 처음 벼슬길에 올라 장차 그의 가문을 이어 갈 터였으나, ㉠**다만 술에 병들어 갈수록 더 마시다가 황달이 들었다.** 하루는 거울을 끌어다 자기 얼굴을 비춰 보고는 땅에 내던지며,
“내가 어찌 오래가겠나.”

하고서, 공중에 대고 글자나 쓰며³⁶⁾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더니, 이내 의관을 정제하고 부모님께 나아가 영이별을 고하는데 말이 너무나도 비참하였다. 온 집안이 크게 놀라며 비로소 그가 병든 줄 알고 바야흐로 의원을 맞아다 황달을 치료했으나 이미 늦어서, 군은 병으로 인해 혀가 굳어 말을 못한 채 며칠 만에 죽었다. ㉡**그는 사람 관상을 잘 보아 왕왕 기가 막히게 맞추었다.**³⁷⁾

이 단락은 앞서 다루어진 ‘망자의 생애(④)’가 추가적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 요소들이 담겨 있다. 여기에서 눈여겨 봐야할 표현은 ⑦-㉠ ‘술에 병들어 갈수록 더 마시다 황달이 들었다(病於酒, 益飲疽而黃)’는 부분이다. ‘술’은 수수의 울적한 마음을 호젓하게 달래주던 것이었으나 결국,

35) 박수수가 죽은 24년 후에, 그의 후사 문제에 관한 상소가 있다. 『국역일성록』 정조20년, 병진(1796, 가경1), 1월25일(임신)에 <상언(上言) 36도(度)를 각 해당 관사에 관하(判下)하였다> 중에 “전 감역 박경수(朴綱壽)는 상언에서, 그의 친형 박수수(朴綬壽)는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박제칠(朴齊七)로 후사를 이어 주려 하나 박수수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받을 사람이 없어 관례에 따라 정장하지 못하니 예조로 하여금 상계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라 하였고, 임금의 윤허를 받았다.

36) 진나라 때 은호(殷浩)가 무고하게 유배를 당해, 은 종일 허공에다 ‘쫄쫄 괴상한 일이다(咄咄怪事)’만 썼다는 데서 유래말로, ‘終日書空’ 또는 ‘咄咄書空’로도 쓰이는데, 이 글에서는 ‘書空’로 쓰였다. 『晉書·殷浩傳』 “載殷浩雖被黜放, 口無怨言, 但終日書空作‘咄咄怪事’四字. 后以‘咄咄書空’形容失志、懊恨之態.”

37) 박지원 앞의 글: 將業其家世. 而顧病於酒益飲. 疽而黃. 引鏡自照. 抵鏡於地曰. 我其久於世哉. 書空若有思. 因整衣冠. 辭訣於父母. 語多悲愴. 家大驚. 始知其病. 方邀醫治疽. 未及. 而君因瘖不言. 數日而歿. 善相人多奇中.

병통이 되었다. 그런데 ⑦-㉑ 그의 숨겨진 재능인 ‘기막히게 관상을 잘 보는 (善相人)’ 것은 이 비극적 상황을 가증시킨다. 관상을 잘 봤다는 것은 본인의 운명과 생을 미리 짐작하기도 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 안타까움을 주는 것은 ‘마지막 관상’을 본 후 그의 행동이다. 죽음을 앞에 두면 살아생전 못했던 이야기를 더 말 하고 싶은 법이지만, 수수는 홀로 공중에 글자를 썼다. ‘書空’은 ‘극심하게 낙담하여 탄식하는 모습’을 극대화한 표현이다. ‘마지막 관상’을 통해 자신의 명이 다하였음을 알았고, 말하지 못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悶鬱)’을 허공에 그려낸 것이다. 이 행동에는 극한의 외로움이 담겨 있다. 이는 ④ 단락에서 살폈던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 없었던(無誰語)’ 생애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혀가 마비되어 죽었다(君因瘖不言)’는 것 또한 망자의 한(恨)을 더하는 지점이다. 가족들에게도 평생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답답하게 살던 그가, 죽음을 앞두고는 혀가 굳음으로써 끝끝내 해원(解冤)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혀가 굳어 죽었다’는 것은 평생 더불어 마음을 나눌 이 없던 수수의 생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⑧ 명(銘)은 다음과 같다.

귀하게 되면 인색해지고/ 貴之徵嗇
 부유해지면 더러워지고/ 富之徵濁
 오래 살면 포악해진다/ 壽之徵虐
 인자하고 진실한 자에겐 요절이 뒤따르고/ 慈諒者天之躅
 깨끗하여 찌꺼기 없는 자에겐 가난이 깃들고/ 皜無滓者貧之宅
 베풀기 좋아하고 주는 것 많은 자는 높은 벼슬이 없다/ 好施多予者無高爵
 이 여섯 가지 덕 중에 내 장차 어느 것을 택할까/ 于茲六德吾將焉擇
 아! 못난 자식에겐 격려하여 일으켜 세우고/ 吁不肖者勸以作
 암전한 자에겐 가로막아 억누르다니/ 愷悌者沮而抑
 내 말을 못 믿거들랑 여기 세긴 글월을 보소/ 有不信視此刻³⁸⁾

이어지는 명(銘)에서는 그의 짧은 생애에 대한 안쓰러움이 담겨있다. 명은 여

38) 박지원 앞의 글 : 銘曰。貴之徵嗇。富之徵濁。壽之徵虐。慈諒者天之躅。皜無滓者貧之宅。好施多予者無高爵。于茲六德。吾將焉擇。吁。不肖者勸以作。愷悌者沮而抑。有不信視此刻。

섯 가지 덕목을 나열하며 운자를 통일하였다. 앞의 세 덕목은 글자를 4자로, 뒤의 세 덕목은 6자, 7자, 8자로 그 숫자를 늘리고 있다. 이것은 망자를 담은 덕목의 글자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모습에 비중을 더하기 위한 것이다. 앞의 세 덕목인 ‘귀(貴)하고, 부유(富裕)하고, 장수(長壽)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인색함과 부정함, 그리고 포악함이 남는다. 모두가 원하는 ‘존귀’한 것이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을 더 ‘비루’하게 만드는 요인인 까닭이다. 그리고 뒤에 이어진 ‘인자하고 진실한 자(慈諒者), 깨끗하고 청렴한 자(皭無滓者), 베풀기를 좋아하고 많이 하는 자(好施多予者)’에게는 요절과 가난이 찾아오며 고작(高爵)이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망자의 생애를 보면 그 또한 증명되는 진실이다. 누구나 뒤의 세 가지 덕목의 삶이 바람직함을 알지만, 그 선행의 귀결이 가혹한 연유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한다. 이것이 ‘생의 부조리’다. 그렇기에 못한 자식은 높이 세우면서도, 압전한 자식은 가로막아 억눌러야 하는 상규(常規)가 생긴 것이다. 모순된 표현으로 현실의 부조리를 드러냄으로써, 망자의 고결한 생을 전략적으로 그려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단락별 중심 내용’을 순차적으로 이해하면, 연암 특유의 ‘탄소리 전법’ 때문에 주제적 접근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내용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문단을 재구성해 보면, 구조적 치밀성(緻密性)이 한눈에 들어온다.

단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비지문 구성요소	가계1	찬술 동기1	가계2	생애1 (生)	찬술 동기2	생물 관력 처자록	생애2 (歿)	명
망자의 생애	적장자	울결	졸박함	담박함	해원	요절	선상인 (善相人)	부조리

<단락별 중심 내용>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비지문 요소를 두 번씩 다루는 ‘이중배열’ 특징이 있다. 이중 배치된 비지문 요소를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 ① 단락과 ③ 단락은 ‘가계’를 표현한 내용 요소이다. ①에서는 가계도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 했다면, ③에서는 그 가문 사람들의 내적인 성품과 성향에

대해 장황하게 기술하고 있다. 두 번째로 ② 단락과 ⑤ 단락은 ‘찬술동기’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으나, ②의 경우에는 청탁의 과정이 ⑤는 찬술자가 망자를 설명하는 장면이다. 세 번째로 ④ 단락은 망자 생전(生前)의 모습을 일화 중심으로 나열한 부분이며, ⑦ 단락은 죽음 직전의 일화를 순차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처자록 ⑥과 ⑧의 명(銘)이 갖추어져 있다. 이중배열 중 전자를 ‘드러난 삶’이라 지칭하고, 후자를 연암이 ‘드러낸 삶’이라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앞에 제시된 요소가 ‘일반적이고 외적인 관계’에서 관찰할 수 있던 것이라면, 뒤에 배치된 요소는 망자의 애환을 공감하고 이해한 뒤에 알 수 있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삶’이 담겨 있다. 이런 치밀한 구성은 ‘망자의 생애’를 초점화하고 집중화하는 효과를 만들었다.

3. 망자 생(生)의 요처(要處)와 해원(解冤)

망자의 생(生)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찬술동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찬술동기’에서 ‘드러난 삶’은 부친 박상덕이 기억하는 ‘졸박한 아들’의 생애이고, ‘드러낸 삶’은 지기였던 연암이 회고하는 ‘은넉한 문장가’로서의 모습이다. 이 부분은 유일하게 비지문의 찬술자(연암), 청탁자(부친 박상덕), 대상자(아들 박수수)가 함께 있는 대목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즉, 이 글의 중심축이다. 망자에 대한 각자의 기억을 공유하는 형식을 통해, ②와 ⑤에서 ‘부친과 아들의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진다.

②에서 부친은 자식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담아서, 망자의 해원(解冤)을 연암에게 부탁하였다. 평소 부친은 아들이 ‘연암의 글’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숨겨진 의미나 내면적 지향까지는 공감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온전히 이해되지 않던 아들의 죽음을 연암의 ‘글’을 통해 풀어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연암은 수수가 평소 업뎃었던 내면을 밝혀주었다. ⑤에서 망자의 ‘넉넉한 마음과 뛰어난 문사적 기질’을 들려준 것이다. 그리고 이 찬술동기 앞, 뒤로 망자의 생애 ④와 ⑦을 배치하였다.

④-⑦에서 과거 급제 후 답박한 성미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새장 속의

학'처럼 답답해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학'은 새장에 살 수 없는 고고하고 깨끗한 존재이다. 학처럼 자유롭고 탈속적이던 수수는 현실적 삶 속에 얽매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 모습은 ④-㉠을 통해 구체화된다. 평양에서 과거 공부를 하던 중에도, 울적하고 답답하면 홀로 나와 술을 기울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수수의 '졸박함(엄닉, 검소함)'을 기술하며 슬며시 덧붙여진 일화이지만, 그 안에는 생의 고(苦)와 울결(鬱結)이 담겨 있다. 그 울결의 근원적 이유는 ⑦단락 속에서 찾을 수 있다.

⑦-㉡의 중병상태에서 더욱 술을 마셨다는 것은, 효우공검(孝友恭儉)했던 평소 행실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장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았기에 원치 않던 급제까지 했던 이가, 죽음 앞에서 스스로 몸을 지키지 않았음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불효(不孝)이며, 불충(不忠)이다. 망자를 공감하게 해주는 핵심 구절이 바로 ⑦-㉠이다. 평소 수수는 '善相人'으로 기이하게도 관상이 적중했다. 이 부연이 망자 '생(生)의 요처(要處)'를 파악하는 열쇠이다. 수수는 자신이 '요절할 운명'임을 이미 알았던 것이다. 그렇기에 항상 답답해하면서도 누구와도 그 속내를 나누지 못했을 것이다.(鬱鬱無誰語) 하지만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었으며, 그 운명을 극복할 길조차 없었다. 이러한 수수의 행동들이 연암에게는 '새장 속의 학'처럼 답답해 보였을 것이며, 망자가 과거에 급제하고서도 즐거워하지 않았던 이유였을 것이다. 자신의 귀결을 알면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던 괴로움이 끝까지 공서(空書)로 표현되어, 이 글을 읽는 사람조차도 가슴이 먹먹하게 만들었다.(書空若有思) 이것이 망자가 평생 스스로를 엄닉(掩匿)했던 연유이며, 부자간의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했던 까닭이다. 연암도 이 재주에 대해서는 차마 부친의 면전에서 밝히지 못하였다. 다만, 묘지명을 통해 글 말미(末尾)에 슬며시 덧붙여 놓았을 뿐이다. 이 행간을 읽는 자만이 망자의 죽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완성된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이야말로 '죽은 아들과 산 아버'의 모든 곡절을 명쾌하게 풀어준 '解冤文'이라 할 수 있다.

4. 나아가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결’로 상대의 ‘결’을 이해한다.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은 이른 나이에 요절한 박수수의 생애를 연암의 시선으로 담아 낸 작품이다. ‘차마 말할 수 없던 진실’과 ‘불통(不通)으로 인한 외로움’이 누적되어, 망자는 끝까지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한 상태로 생을 마감하였다.

특출한 문재(文才)와 너넉한 흉금(淸曠), 청렴결백한 가풍(拙朴), 그리고 남다른 재능(善相人)을 지녔던 박수수에게 그의 생은 무거웠다. 권세가(權勢家)의 자손으로 더욱 엄격하게 효우공검(孝友恭儉)을 실천해야 했던 가풍의 중압감. 그리고 적장자로서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지위. 그러나 자신이 요절할 운명임을 알고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현실. 이 부조화가 망자를 더욱 짓눌렀을 것이다.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에는 죽음 이후에라도, 망자의 인생을 알리고자 하는 지기(知己)의 애정이 담겨 있다. 일생 동안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엄닉(掩匿)하며 살았기에, 수수의 가족조차도 망자의 본연을 다 알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비자발적 ‘불통(不通)’이 마침내 ‘소통(疏通)’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연암 ‘文’ 덕분이었다. 이를 위해 연암은 문단 구성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였다.³⁹⁾ ‘찬술동기’의 대화 장면을 중심으로, 비지문 요소들을 ‘이중배열’하여 망자의 생애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반에는 부친이 알고 있던 망자의 줄박한 삶을 부각하고, 후반에는 생의 행간을 읽을 수 있도록 단서를 던져두었다. 가장 마지막에서야 ‘善相人’의 재능을 언급함으로써, 평생 스스로 감추려 했던 진실을 밝혔다.

기존의 가치관으로 망자를 보았다면 ‘무후(無後)와 불효(不孝)’로 이해했겠지만, 연암은 망자의 삶에 시선을 돌렸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 중세적 가치(長子)로 인한 엄니움, ‘불통’이라는 화두와 엮어 그려내었다. 결국, 망자의 ‘울결(鬱結)된 마음’을 풀어낸 방식 또한 연암의 말과 글을 통해하였다. 그렇기에 비로소 죽은 후에서라도 해원(解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상덕 또한 연암을 통해서 마침내 아들의 전 생애를 오롯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 애통함을 담

39) 이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바, 초기작과 비교해서 문단의 재배치나 생략, 추가가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를 더할 예정이다.

아 묘지명으로 써주길 청했던 것이다. 비록 살아서는 가족들과 소통할 수 없었지만, 죽음을 통해서 진정(眞情)을 드러내고 이해 받을 수 있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다. 이것이 명(銘)에서 언급한 ‘생(生)의 부조리’이기도 하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眞情), 이것이 바로 연암의 필력이며 주제의식이다. 이 글은 비지문의 ‘공작’인 목적뿐 아니라 한 개인의 비극적인 ‘생애’를 구조적으로 재현하였다. 비지문의 형식적 특성을 따르면서도, 개성적 문체와 뛰어난 표현력으로 그 문예미를 담아내었다. 망자 입장에서 그 삶을 공감하고 이해함으로써, 고통의 요처(要處)를 파악하는 힘. 이것은 바로 연암이 망자를 전심(全心)으로 담았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연구자는 앞으로도 박지원의 ‘진정(眞)’을 담은 비지문을 개별적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연암의 비지문이 다른 문인들과 구별되는 차별성과 독자성을 찾아가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추후 연구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국역일성록』

박종채, 박희병 역, 『나의 아버지 박지원(과정록)』, 돌베개, 1998.

박지원, 신호열·김명호 역, 『연암집』 권2, 돌베개, 2007.

이덕무,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정 민, 『고전문장론과 연암 박지원』, 태학사, 2010.

2. 논저

강국주, 「燕巖文學과 ‘죽음’의 형상화 방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강명관, 「〈열녀함양박씨전〉 재론」, 『동양한문학연구』 32집, 2011.

김철조, 「연암의 〈烈女咸陽朴氏傳〉再考-새로운 자료 소개를 겸하여」, 『大東漢文學』 24집, 2006.

김철조, 「燕巖 朴趾源의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연구-개작 과정과 글쓰기 방식을 중심으로」, 『漢文學報』 22집, 2010.

박수밀,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의 구조와 글쓰기 방식」, 『韓國漢文學研究』 53집, 2014.

신두환, 「조선 사림의 시가에 나타난 ‘졸박’의 문예미학」, 『한국한문학연구』 38집, 2006.

윤세형, 「박지원 산문의 연구 : 비지문(碑誌文)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동환, 「朴燕巖의 洪德保墓誌銘에 대하여」, 『이조후기 한문학의 재조명』, 창작과 비평사, 1983.

이월영, 「〈열녀함양박씨전〉 연구(研究)-문학적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집, 2012.

장원철, 「燕巖의 碑傳文字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13집, 1990.

정 민, 「홍덕보묘지명의 명사고」, 『동방한문학』 21집, 2001.

- 정순희, 『박지원 산문의 문체적 특성 일고-어휘와 주제의 관련 양상을 통해-』, 『한국한문학연구』 42집, 2008.
- 정순희, 『박지원의 비지류 산문에 나타난 ‘孝’의 형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학』 90집, 2014.
- 정순희, 『박지원 <삼종형수록대부금성위겸오위도총부도총관증시충희공묘지명>의 구조와 서술전략-정조<금성위박명원신도비명병서>와의 비교를 통해』, 『어문연구』 83집, 2015.
- 황의열, 『朴燕巖의 碑誌類文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의이론 산문』, 보고서, 2007.

【국문초록】

본고는 박지원의 비지문 중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연암의 비지문에 대한 독자적 접근은 어휘나 개작과정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비지문이 서로 다른 시기의 망자를 다룬다는 점에서 개별 작품에 대한 내재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작품 전체 단락 분석과 비지문 구성요소의 구조적 배치, 망자의 생애를 드러내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작품은 ‘가계-찬술동기-생애-명’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동일한 비지문 구성요소가 이중 배열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찬술동기를 중심축으로 가계와 생애가 전·후로 이중배열 되어서, 공적으로 알려진 망자 박수수의 생애와 지기(知己)인 연암이 알고 있던 사적인 생애를 거듭 부연하는 ‘드러내기’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아울러 망자의 생애 대한 곡진한 이해를 통해, ‘적장자’로서 살아야 하는 사회적 역할과 ‘문사(文士)’로서 살고 싶은 개인적 욕망의 울결, 관상으로 자신의 운명을 예측했으나 벗어나지 못했던 비애를 포착하였다. 극한의 외로움과 반남 박씨의 엄격한 가풍을 교차하며 드러내었다. 연암은 가족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고독하고 쓸쓸하며 답답했던 망자의 생애’를 형상화함으로써, 망자의 요절을 이해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생의 요처(要處)를 찾아내어 울결된 애환을 집중적으로 묘사하여, 해원(解冤)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진정성(眞)’이 바로, 연암의 비지문의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박지원, 비지문, <족손홍문관정자박군묘지명>, 박상덕, 박수수, 이중배열, 졸박, 해원, 선상인(善相人)

【Abstracts】

Park Ji-won's Writing for making the deceased Park Su-su Understood in Hongmungwan Jeongja, Grandson and Nephew of's Epitaph

Hyun An-ok

This study sets Ji-Won Park's the Epitaph, the Grave of Mr. Park, Hongmungwan Jeongja, Grandson and Nephew as the target for analyzing. The previous independent studies on this topic were partly about vocabulary or a modification process. Since the work dealt with the various deceased of different times, the internal study of the individual works is justified.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paragraph analysis, its components, structure, and the life of the deceased. Firstly, the work is composed of the family tree-the main purpose of writing-life-death. And it can be characterized by its parallel structure.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writing divides his family tree and lifetime in the parallel structure. The official life of the deceased, Park Su Su and the private life that his close friend, Yeonam was aware of, were revealed and amplified repeatedly. Secondly, through the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deceased, his expected social role as a pure breed and his desired to be a scholar were deeply shown in this work. This work was used to express Park's loneliness and his agony that he had to hide. Also it revealed the strict legacy of Bannam Park. His loneliness and desperation

that even his family could not empathize were projected in this work. This made us understand his early death. Thirdly, Yeonam captured the prime life of the deceased and described intensively his happiness and sorrows. This eventually could have given him the inner peace. Yeonam's sincere attitude is well shown in the work.

Key words: Park, Ji-Won, Epitaph, Park Su Su, Paragraph Analysis, Loneliness and Desperation, Understanding, Parallel Structure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7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8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